



올 근로자 임금 3.5% 인상 '난임 유급 휴가제' 신설도

삼성전자가 올해 임금을 3.5% 인상기로 했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사원협의회는 올해 임금의 기준인상률을 3.5%로 합의했다. 삼성전자의 임금인상률은 2013년(5.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직원들은 3.5%를 기준으로 개인별 고과에 따라 인상률이 차등 적용된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난임 유급 휴가제'를 신설하는 등 저출산 대응 방안도 내놨다. 양측은 직원 부부가 난임 치료를 원할 경우 1년에 사흘간 유급 휴가를 주고,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남성 직원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기존 최장 5일에서 열흘로 늘리기로 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un@

작년 카드사용 日평균 2.2조 온라인쇼핑·여행 10% 급증

지난해 카드사용액이 하루 평균 2조2000억원을 넘어섰다. 온라인쇼핑과 여행 등에서 개인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급증했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17년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 이외 지급수단에 의한 결제금액은 하루 평균 76조8000억원으로 전년 76조3000억원 대비 0.7% 증가했다. 여기에 신용·체크 및 직불 등 지급카드 이용은 평균 2조229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5.9% 늘었다.

신용카드의 경우 일평균 1조7600억원으로 4.9% 늘었고 개인 이용실적은 전자상거래와 여행·교통 이용 증가 등으로 10.2% 증가했다. 법인 이용실적은 국제 카드납부 축소 영향으로 8.7% 감소 전환했다.

체크카드는 일평균 466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0%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체크카드의 경우 신용카드보다 높은 세제혜택, 신용카드와 대등한 부가서비스 제공 등으로 이용액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전체 이용실적에서 체크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9%로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봉준 기자 bj35sea@

한줄뉴스

정책·사회

▲ 최저임금이 정기 상여금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의가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 서울 서북권이 디지털미디어 거점으로, 신촌 일대는 청년 창업 거점으로 육성된다.

산업

▲ LG전자가 7일 서울 가산동에 '사이니지 365 원격 케어 상황실'을 오픈하고, 상업용 디스플레이 판매사업의 글로벌 공략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 세계 4대 모터쇼 중 하나가로 꼽히는 '제네바 모터쇼'가 8일(현지 시간) 막을 올렸다. 올해는 친환경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부동산

▲ **하나금융그룹**은 '코리아 서포터즈' 586명을 구성해 평창 패럴림픽 대회 기간 동안 응원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공연도 함께 하기로 했다

▲ 서울 개포주공 8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 자이 개포'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통&라이프

▲ 편의점업계가 3월의 특수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독특한 프로모션 전쟁에 나섰다.

▲ 봄이 한걸음 다가오면서 **식품업계**가 벚꽃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2015년 완공한 루와이스 정유플랜트.

/삼성엔지니어링

삼성ENG, UAE서 5100억 공사 수주

UAE 국영 아드녹 리파이닝社 폐열 회수처리 시설 프로젝트

삼성엔지니어링이 UAE에서 폐열 회수처리 시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6일 UAE 국영석유회사 아드녹(ADNOC)의 자회사인 아드녹 리파이닝으로부터

5100억원(4억7000만달러)규모의 W HRP(폐열 회수처리 시설) 프로젝트에 대한 낙찰통지서(LOA)를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UAE의 수도 아부다비에서 서쪽으로 약 230km 떨어진 루와이스 공단 내에 건설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설비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 230메가와트(MW)의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과 시간당 2600입방미터

(㎥)의 담수를 생산하는 시설로 구성된다.

삼성엔지니어링은 EPC(설계, 구매, 시공) 전 과정을 일괄타입 방식으로 수행, 2023년 완공할 예정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올해 초 CFP 프로젝트에 이은 연속수주로 아드녹 리파이닝과의 깊은 신뢰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와 더불어 삼성은 프로젝트 수

행경험과 기술력을 충분히 활용해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완수할 계획이다.

특히 CBDC 정유, RRE 정유와 최근 수주한 CFP 정유 등 루와이스 공단 내 프로젝트와의 연계 수행으로 기존 경험인력과 장비, 가설시설, 협력사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김종호 “자력 정상화 불가능… 신규자본 유치 절실”

(금호타이어 회장)

김 회장, 회사에 사측입장 게시 채무변제 실패면 법정관리 신청

김종호 금호타이어 회장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회사의 자력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해졌음을 인정했다. 또 해외 매각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7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을 회사에 게시해 해외매각 찬반논란과 관련한 사측의 입장을 정리했다. 김 회장은 “회사의 자력 경영정상화가 사실상 불가능해 자구안을 마련하고 외부자본을 유치해야만 정상화가 가능하다”며 “만기 도래한 채무 변제에 실패할 경우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김종호 금호타이어 회장.

에 없다”고 말했다.

김호타이어는 지난달 28일 자구안에 대한 노사간 의견일치를 이루었지만 채권단의 해외 매각 발표로 인해 노사간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회사의 생존과 정상화를 위해서는 채권단이 제시한 3월 말까지의

자 유치 동의서를 포함한 자구안을 다시 협의하고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협상을 재개 해야하는 상황이다.

그는 “만약 3월말까지 자구안 마련을 하지 못해 만기 도래한 채무변제에 실패할 경우 회사는 불가피하게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며 “법정관리 신청 자체가 인원 감축 등 혹독한 구조조정을 요구하며 경영정상화까지 수많은 난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호타이어는 2015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569억원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다. 3개월에 걸친 외부 회계법인의 실사결과 계속기업가치는 4600억원이며 청산가치는 1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김 회장은 해외 자본 투자에 대해 “현재 회사 재무상황을 고려할 때 신규자본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해외 공장을 포함해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투자 실행 능력 ▲회사 전체 종업원의 고용 안정 보장 ▲브랜드 가치 제고와 영업·생산 시너지 효과 창출 등을 최우선 조건으로 여기고 채권단에 지속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회사 현 상황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내부 갈등과 오해보다는 전 임원이 한마음이 돼 생존에 집중하자”고 독려했다. 또 현재 지급이 지연되는 급여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양성문 기자 ysw@

봄철 불청객 미세먼지… 아이교복 보호하려면

옷감보호·변색방지 ‘중성세제’로 재킷은 세탁 보다 드라이클리닝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면 어김없이 불청객 황사와 미세먼지가 함께 찾아온다. 온종일 착용하는 교복의 경우 오염물질 등이 쌓이기 쉬우며 봄철 미세먼지와 황사는 학부모들의 빨래 부담을 가중시킨다. 실제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교복이 변기보다 82배 많은 세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애경 관계자는 7일 “값비싼 교복의 수명을 잘 보존하려면 소재가 각기 다른 재킷, 셔츠, 바지 등의 세탁라벨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세탁 방법을 따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셔츠·조끼·넥타이 ‘중성세제’**로 셔츠와 블라우스는 자주 착용하는 만큼 옷감 보호와 변색 방지에



교복 셔츠 세탁라벨.

/애경

탁월한 중성세제로 세탁하는 것이 좋다. 셔츠, 조끼, 넥타이 등의 세탁라벨을 확인하면 ‘손세탁’이란 세탁기호가 있다. 손세탁 기호가 있는 의류들은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를 풀어 3분 정도 담근 다음 손

으로 부드럽게 눌러서 세탁한 후 행궈내야 한다. 누렇게 변한 셔츠의 목 뒤, 때가 낀 소매 부분은 중성세제를 솔에 묻혀 문지르면 깨끗하게 제거된다.

대표적인 중성세제인 애경 ‘울삼푸 교복워시’는 pH 6~8의 중성세제로 섬유 관리와 피지오염 제거에 효과적이며 활동량이 많은 청소년의 셔츠나 블라우스 세탁에 적합하다.

세탁기를 사용할 때는 단추를 다 채운 후 세탁망에 넣어야 옷의 형태 변형을 방지 할 수 있다. 울코스, 란제리코스, 섬세코스 등 가장 약한 코스에 맞추고 미지근한 물(30℃)에서 세탁하는 것이 좋다.

넥타이, 리본타이 등 액세서리도 중성세제에 담근 후 칫솔로 때를 제거하면 효과적이다. 세탁 후에는 수건으로 누르며 물기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

◆재킷 ‘드라이클리닝’

교복 재킷은 물세탁 할 경우 옷감이 손상 될 수 있으므로 세탁라벨 확인 후 드라이클리닝을 하는 것이 좋다. 드라이클리닝 한 후 비닐 커버 속에 넣은 상태로 보관하면 습기, 화학약품으로 인해 의류가 손상 될 수 있으므로 벗겨서 보관해야 한다.

교복 바지와 치마는 처음 1~2회 세탁은 드라이클리닝으로 해 교복의 형태를 잡아주는 것이 좋다. 드라이클리닝 이후에는 알칼리성인 일반세탁세제보다 옷감보호기능에 탁월한 중성세제로 세탁하는 것이 좋다. ‘울삼푸 오리지널’은 국내 최초로 울마크를 획득한 중성세제로 섬유보습, 탄력유지 등 옷감 보호 기능에 도움을 준다.

/김유진 기자 ujin6326@